

어린이·청소년법회 즐기고있다

직할교구 5곳 법회중단...단체도 15곳 해체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사

한국불교의 미래를 견인해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최근 57개 직할교구사찰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던 사찰이 96년 30곳에서 25곳으로 5개사찰이 법회를 중단했으며, 총 58개에 이르던 어린이, 청소년단체도 3년간 15개가 해체돼 총 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 참가 평균인원도 96년 53.33(어린이)명과 31.5(청소년)명

서 45.33명과 25.2명으로 각각 15%, 1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어린이법회가 없어지고 청소년법회만 남아 7~8명의 회원으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있는 사찰도 4곳에 이르러 2~3년내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경우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사찰에서의 인식부족과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 사찰지인 열악등을 꼽고 있다.

또 타종교와 달리 학업을 강요하며 청소년법회의 참가를 꺼리는 불자부모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종단적 차원에서도 유치원, 어린이회, 청소년회, 대불련, 청년회, 신도회로 이어지는 자연스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도 빠른 시일내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단체들은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 양성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법회 운영 의무화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원 확대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법문자료 개발 △어린이, 청소년단체간 교류강화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파라미타의 경우 프로그램이 부재한 사찰의 청소년법회가 감

소추세인 반면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불교학생회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포교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계종포교원 양진수주임은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96년 조사시에 비해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침체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종단차원에서 일선 사찰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포교지도서 작성, 포교인력양성, 단기간 네트워크 형성, 현황과약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정치인 발길잡은 불교행사장

4.13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교행사장에 정치인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22일 서울부암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연수회, 이날 행사에는 애초 이종찬 임재정씨 등 두 사람이 참석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이인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근태 유재건 부총재, 이석형 은평을지구당 위원장 (장재식 의원은 행사가 끝난 직후 도착) 등 민주당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주최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여의구위원장도 참석해 인사했다.

이인제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희망을 향한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른 사람



◇22일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연수회에서 이인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정당마다 지지호소

종무안내 10분-정치인 인사 30분

들은 저마다 불교와의 인연을 거론하며 자기를 소개했다. 김근태씨는 대각사 옆에 살며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스님의 권유로 학생회에도 나갔다고 말했다. 은평을에 출마하는 이석형 변호사는 불광동의 지명을 설명하며 "부처님의 은덕으로 우리나라가 화합상생하도록 스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건씨는 미국에 있을 때 설조스님과 교류를 강조했다.

직할교구 주지 연수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할 것도 이례적이다. 예전에는 주지 연수를 조계사 문화교육관이나 종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치렀으며, 정부 인사의 참석은 없었다. 박 장관의 인사는 종교관련 주무장관이어서 공식 식순에 포함

돼 있었다.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 도난 대책, 비지정문화재 보호, 서울·경기지역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며 "민족의 웅비는 스님들의 협력과 지도가 있을 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 행사의 목적인 종무계획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안내는 10여분만에 끝났고 정치인들의 인사가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불교행사에 정치인들이 인사하겠다고 찾아왔으니, 한 사람 정도의 인사는 타할 것이 없었지만, 너무 후하게 인사(?)를 쓴 꼴이었다"고 꼬집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146회 총회 32개 안건 처리

문수사등 3개사찰 직영 해제

14일 개원해 이틀간의 정중감사 후 17, 18일 다시 열린 조계종 146회 중앙총회는 문수사 해남사 관룡사 등 통도사 3개 사찰을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상대로 종책직의를 벌이는 등 모두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17, 18일 열린 총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기 2543년(1999) 중앙총무원 관 후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대책특위 해체 및 결의문 채택 : 김포학사 대책 특위를 해체하고 이후 집행부와 총회의원, 교계 증진스님들로 구성하는 대책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또 김포학사 대책 특위가 제안한 불필요한 건축비의 삭감(특위 보고서 80억7000여만원) 촉구. 승

가학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삼보정재 유실에 따른 관계자 의법조치 등을 결의했다.

△포교법 개정 통과. 계단법 승려법 지방종정법 총림법은 종현·종법 제·개정특위 논의 후 다음 총회의 논의 △원명스님을 원로의 원으로 추천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립 위해 재협상 추진 △재정분과 위원장은 간사가 대행.

△중앙승가대학 법인사무처장 중징계 촉구. 동국학원 이사 사퇴 및 이사 추천 동의.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추천 동의.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특위 구성. 은혜사 계율도량 시행 촉구 등의 안건은 폐기했으며, 종단 구조조정 특위 구성의 건은 철회했다.

정성운 기자



포교사 전문화 교육

포교사단, 5월13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범)이 18일 포교원 강의실에서 개최한 포교사 전문화교육에 70명의 포교사가 참석, 불교상담교육을 받

고 있다. 이날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포교전문화 상담교육은 '아동과 청소년 심리' '불교와 상담' '부처님의 교화사' '중년과 노년의 심리' 'MBTI성격검사' '사역역할' 등의 강좌가 다채롭게 열린다.

김원우기자

태고종사 발간위 모임

편집방향·일정등 논의

한국불교 태고종사 발간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수열스님)는 15일 제주 산광사에서 모임을 갖고 태고종사 발간에 따른 편집방향과 추진 일정 등에 관해서 논의했다. 12명의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태고종사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꾸준히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편집방향을 정리, 종단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섭외해 나가기로 하고 섭외위원으로 수열·만춘·법성·지상·일로 스님을 선임했다.

태고종사 발간준비위원회는 발간을 위한 기금마련을 꾸준히 진행시켜 현재 1천6백만원의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기자

분당불교신도회 창립

경기도 분당불교신도회(초대회장 배종욱)가 4월 3일 12시 뉴타운호텔 5층 대연회에서 창립총회 및 암도스님 초청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배종욱 초대회장은 "앞으로 지역 전법사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법포교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1면 '매장' 서 계속

그러나 가까운 사할 납골시설을 이용하려는 불자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강모리 화보산(50, 경북 구미시 사곡동)은

불교계 주요 연방·납골당 현황

시설명	종류	연락처
법미음선원 공영지원	공영	042-977-5000
법미음선원 전주지원	공영	051-748-183
법미음선원 제주지원	공영	064-721-992
법미음선원 경남지원	공영	052-942-6629
경상 백양사	불교	065-392-7824
시흥 영덕사	불교	0345-498-7700
태고종공제회 활영사	불교	0355-832-4113
영진 만불사	불교	1523-035-0101
부전 석원사	불교	032-667-3404
삼학원 영오전	불교	0348-941-3416
시흥 봉인선원	불교	02-577-6800
밀양 부인사	불교	0527-333-8033
고양 정인사	불교	0344-966-4222
서울 삼보사	불교	02-352-6406
보령원 영림공원	불교	010-738-4555
경희 전지정사	불교	032-922-9889
인천 오봉정사	불교	0355-834-2140
포천 다보정사	불교	0387-531-0580
대전 구림사	불교	042-822-2377
고양 죽림사	불교	0344-963-9152
양산 종선사	불교	0525-982-5074
의령 용곡사	불교	0555-672-0022-3
안산 건봉사	불교	0523-382-1423-4
태고종 보현정사	불교	02-939-2550
종로대	계획	02-2291-3734
봉선 고심사	계획	0446-876-5426
부산 평어사	계획	051-508-3122-7
울진 동종사	계획	0446-877-0743
해운 광덕사	계획	0342-792-5366
울성 미타사	계획	0448-872-3222
예산 수덕사	계획	0458-337-6665

달마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찰에 모시려고 했으나 인근에 납골시설이 없어 결국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국 각 사찰에 납골시설이 있는지를 문의해오는 불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사할 납골당은 불교의 전통 장법(葬法)인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납골을 불교복지의 정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신행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또 기존 사할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절감효과와 함께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법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능인선원의 한 관계자는 "신도들이 명절마다 멀리 공양모지나 선산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절에 와서 조상참배와 함께 신행생활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현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걱정이다

"종단 '불사 관리체제' 마련해야"

재가연대 포럼서 제기

허술한 불사 관리로 인한 삼보정재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종단 재산의 관리·처분·취득과 관련한 종법·령 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옥 총회발전재가봉사단 부단장은 22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정기포럼에서 '종단 건축불사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관리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삼보정재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김 부단장은 "김포학사 건축불사

의 경우 예산안정부터 비계획적·무원칙적으로 진행돼 삼보정재를 허비하고 부실공사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단 건축불사의 관리방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사추진에 대한 종단적 관리방안(메뉴얼화)의 표준 마련 ▲불사추진(종단 재산의 관리·처분·취득 등)과 관련한 종법·령 제정 ▲총무원의 관리시스템 강화(불사지문위원회 구성 등) ▲단위 사할 스님들의 의식개혁(삼보정재의 공개와 투명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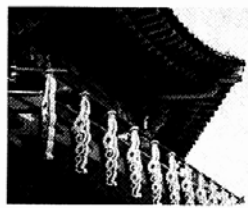
스님!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 건축공예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전통공예는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을 위한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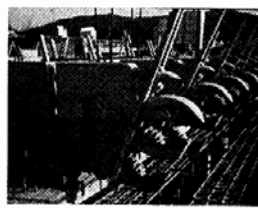


사업안내

- 고건축사업부 : 콘크리트 범당, 목조건축, 요사채, 콘크리트성형조각 판매
 - 조각내장사업부: 탁자, 닻집, 법상등(내부전체)
- 대한불교 예술원(자매회사)



계자각 조립



외3포 내5포 조립과정



외3포



외3포 양생과정



서기래양성

특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 날수가 있습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본사) 서울 중랑구 명우3동 518-34 (효성빌딩)
 • 서울전화 (02) 494-4890~1 • 울산전화 (052) 258-2813
 제1공장: 경기도 용인시 남서면 원정리
 제2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우봉리 545-5